



16개 경제단체 ‘절전 실천 협약’ 대한상공회의소 등 16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지난 3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범경제계 절전 실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의 제공>

금호산업, 건설-고속 오늘 분리

고속 매각해 그룹 정상화... 단순 물적 분할

대우건설 등 계열사 20일 우선협상자 선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이 1일부터 금호산업에서 분리돼 매각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30일 금호산업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지난 10월27일 주주총회를 열어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를 1일부터 분할해 금호고속주식회사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에는 건설부문만 남게 된다.

이는 지난해 4월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금호고속을 매각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려는 교육책이다.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금호고속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라는 해석이다.

금호고속은 금호산업에서 발행하는 신설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 형태로 분리돼 주식매수청구권에 해당되지 않고, 분할에 따른

자본감소도 이뤄지지 않아 자본금이 나 주식총수의 변화도 없어 매매거래 정지나 변경상장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금호산업은 설명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지만 매년 400억~500억원의 이익을 내는 알짜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3267억원, 영업이익 52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호고속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그룹을 일으킨 모태이자,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 때문에 금호그룹은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되사울 수 있도록 풀옵션 조항을 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호그룹은 금호고속 외에 서울교

속버스터미널, 대우건설, 경기고속도로 등 계열사 지분의 매각도 추진 중이다.

매각 지분은 금호고속 100%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38.74%), 대우건설(12.30%), 경기고속도로(25%) 등이다. 매각 금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지난달 시작한 인수후보 예비심사를 오는 13일께 끝내고 본입찰을 실시해 20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매각일정은 1조원에 달하는 거래 규모에 비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천연 가슴기

벌써 12월이다. 요즘 난방비 무서워 창문 열고 환기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가슴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 다시 들어 놓았다. 가슴기 세정제 사건이 얼마 전이니 불안하고 찜찜하다. 나와 딸아이는 한때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았던 터라 건조함에 민감한데 올 겨울 역시 가슴 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비워 놓았던 솥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 방마다 한 개씩 가져다 두었다. 하지만 가슴효과를 보자면 한 평당 1kg의 솥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딸 아이 방에는 종종 먹고 난 글썽집도 채만 채 가져다 두었다. 마트에서 가슴효과를 낼 뿐 아니라 방향제로도 꽤 괜찮다. 다 마른 것은 벽난로 불쏘시개로 쓰는데 불땀 역시 최고다. 물론 유기농인 경우엔 잘게 썰어 말렸다가 차로 끓여 드셔보시라. 비타민 C가 많아 감기며 피로회복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목욕물에 넣어도 좋다.

사실 솥 가슴기 만드는 방법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대신 좋은 솥을 고르는 방법과 가슴에 좋은 솥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고의 솥은 참나무로 만든 백탄이다. 흑탄은 더 싸지만 원적외선 효과 등에서 떨어지니 세진 중후군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백탄을 고르는 것이 좋다.

백탄은 겉이 희뿌옇고 때려 보아 단단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잘 구워진 것이다. 혹 잘 부스러지는 것은 수입산 야자나무 등 일 수 있으니 사지 않아야 한다. 유해성분 흡착과 살균력은 구멍과 관계가 있는데 구멍이 많고 은빛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 이도저도 복잡하다면 솥 유통업체보다는 믿을만한 솥가마 마을 사이트 같은 곳에서 구입하면 된다.

좋은 솥을 구했다면 입구가 넓은 항아리에 물에 한번 씻은 솥을 담고 물을 반쯤 채워 두면 끝이다. 간간

구멍 많은 솥 사와 물 항아리에 담고

꽃다발 꽃아두면 조경·가습 효과 ‘짱’

히 들여다보아 물이 줄었다 싶으면 보충해주면 된다. 까만 솥만 있는 것이 삭막하다고 느낀다면 한쪽에 수종식물이나 작은 꽃다발 꽃아두어도 괜찮다. 내 경우 그늘과 물속에서 잘 자라는 워터 코인을 돌 항아리에 담아 키우는데 거실 한쪽에 두면 조경은 물론이고 가슴으로서도 훌륭하다.

뒤 비책이 이것뿐이겠는가? 일명 솥방울 가슴기와 이끼 동산, 그리고 실내 텃밭까지 갖추고 나면 겨울 건조함도 무섭지 않다. 먼저 하나씩 설명하자면 벌어진 솥방울을 주위와 물에 며칠 담가 둔다. 벌어진 것들이 다시 입을 다물면 꺼내 접시에 담아 곳곳에 두는데 비늘이 벌어졌다 싶으면 다시 물에 적셔 두면 된다.

그럼 이끼 동산은 무엇일까? 마당의 이끼를 떠와 돌 몇 개와 함께 항아리 뚜껑 안에 꾸며 보았다. 나름대로 나의 겨울 가드닝인데 보기에도 근사할뿐더러 매일 스프레이 물을 주는지라 이래저래 또 다른 가슴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알뜰 가슴 팁이면서 부식에 보탬이 되는 실내 텃밭 마련이다. 먼저 밭을 일구는 방법부터 소개하겠다. 초등학교 과학 실험처럼 면 솥을 깔고(흙은 더 좋다) 따뜻한 물에 하룻밤 불려 놓은 씨앗을 깔고 물을 준다. 한 종류만 심어도 괜찮은데 나는 배추와 무 싹을 한 뚜껑에 심었더니 자라는 속도나 크기가 달라 진짜 텃밭처럼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겨울에 구하기 힘든 새싹 야채를 즉석에서 공수하니 그 맛도 흐뭇하다. <담양댁의 열 두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솥항아리’

박삼구회장 오너 복귀 ‘초읽기’

금호석유화학 전량 매각... 계열분리 급물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보유 지분 전량을 일괄 매각하면서 금호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금호석화 보유지분 전량을 일괄매각(블록세일)했다.

박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전무가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 주식은 각각 134만6512주(5.3%)와 130만9280주(5.15%)로, 이를 국내외 기관투자가 100여곳에 내놓은 것이다.

박 회장 일가는 전날 저녁 대우증

권과 노무라증권 주관 아래 금호석화 보유지분에 대한 일괄매각(블록세일) 작업을 시작했다.

매각 가격은 29일 종가인 16만5500원에 할인율 6.95%를 적용한 15만4000원이며, 총 매각 금액은 약 4090억원에 이른다.

박 회장은 이 매각 대금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 등의 유상증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 복귀를 노리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모두 팔고나면 지배구조상 박찬구 회장과 계열분리를 끝내게 된다. 박찬구

회장은 아들인 박준경 해외영업3팀장과 조카인 박철완 해외영업1팀장과 함께 금호석화 지분 28.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금호석화, 금호폴리켄, 금호미쓰이화학 등)으로 나뉘어 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자가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계열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동생 박찬구 회장을 중심으로 한 금호석화그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r-연합뉴스

해남 가을배추 수매

15일까지 1400t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가을 배추 수매에 나선다.

aT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는 지난 30일 “이번 가을배추 수매는 정부의 감장채소 시장격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산지농협이 계약재배한 가을배추를 최저 보장가격(60만8000원/10a)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수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 물량은 해남 화원농협 1400t 등 전국적으로 2000t 규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0일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가을배추 3만t을 산지폐기를 통해 시장격리했으나 가격안정효과가 미흡하자 올해 생산량이 최근 10년 이래 최고 수준임을 감안, 추가로 2000t을 aT를 통해 수매하기로 한 것이다. /송기동기자 song@

산은 대졸행원 100명 채용

전남대 7명 등 지방대생이 50%

한국산업은행이 대졸신입행원 채용에서 지방대생을 50% 뽑았다. 전남대는 7명이 채용돼 지방대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다.

30일 산업은행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졸신입행원 채용공고를 통해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대 출신 50명을 포함해 총 100명의 신입행원 최종 선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각각 4~10명의 합격자를 냈고 전남대 7명, 부산대 6명, 경북대 6명 등 지방 명문대 출신도 대거 합격했다. 특히 지난해 합격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던 전남대는 지역활달제를 통해 지방대 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역별로 전남 25명, 충청·강원 13명, 호남·제주 12명이다. 2004년부터 산업은행에 입행한 지방대 출신은 총 49명에 불과했다. 이번 채용으로 산업은행 내 지방대 출신 비중은 16.9%에서 18.5%로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은행원 ‘자폭통장’ 사라진다

금감원, 과열영업 적발시 징계

은행원들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돈을 쏟아붓는 이른바 ‘자폭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점 평가시 직원과 가족 명의의 실적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시중은행들에 보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30일 전했다. 직원 가족이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하고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은행원들이 자폭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이 최근 3개 대형 시중은행에서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의 계좌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원 가족 1명당 계좌도 10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원 현장을 검사할 때 직원, 가족 명의의 계좌 개설이 적정한지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자폭통장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직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이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

제조창

롯데

칠성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코카

콜라

해태

제과

금광

아파트

전복장터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 · 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